



## 현대건설 기술·문화교류 해외봉사단 'HCONTECH' 인도네시아에 전한 현대건설의 마음



### 3기 봉사단원들에게 물었다. “당신의 H는 무엇인가요?”

**Hand** 주수민 대학생 단원(A조)  
“Hand라는 단어에는 손, 도움이 손길, 역할, 일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H 컨택 3기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H 컨택이란 도전은 그리 쉽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또 그 이상으로 배우고 얻었죠. 인도네시아의 실로단·외루두루 초등학교, 인도네시아 국립대 친구들과의 만남은 평생 기억할 추억입니다.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준 우리 A조 여러분도 잊지 않았습니. 현대건설 H 컨택 3기 그리고 A조 파이팅!”

**Happy** 신현경 대학생 단원(C조)  
“14박16일간의 시간은 그야말로 행복(Happy)이었습니다. 사실 봉사단에 합격해 합숙 OT를 할 때만 해도 두려움이 앞섰어요. 교육·노력봉사, 문화공연, 적정기술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변화 기초 작업이 너무 힘들어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제 유능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준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Human** 직원 멘토 김병석 과장(토목계약사업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M팀’으로 불렸던 직원 멘토들의 남다른 단합력입니다. 특히 M팀과 함께한 배구장 벽화 활동을 잊을 수 없네요. 김진희 멘토의 노동요, 이슬기 멘토의 디자인, 우리의 얼굴 강병호 멘토, 섭의 담당 정지민 멘토, 열정의 아이론 백경우 멘토, 정신적 지주 김세원 총괄멘토와 안철호 부총괄멘토까지, H 컨택 3기는 사람(Human)을 얻은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Heart** 직원 멘토 김진의 대리(기술솔루션실)  
“실로단 초등학교에서 모든 수업이 끝나면 날, 아이들이 제 손등을 자기 불을 대면서 눈물을 흘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이 고였고, 언제부터인가 ‘정’을 생각할 겨를 없이 달려왔는데, H 컨택을 통해 저를 돌아보고 있고 있었던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따뜻한 마음(Heart)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덕분에 소통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팀역단 ‘인니 파이브!’  
“Apa kabar(아파 카바르, 안녕하세요!) 떨리고 긴장돼 처음에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는데, 2주 만에 정말 많이 친해졌네요.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눈물이 많이 났어요. H 컨택 3기 봉사단원들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거예요. 스마트폰 메신저로 연락하게요. 나중에 또 만나요! Terima kasih(트리카시, 감사합니다!)”



현지 대학생 팀역단 ‘인니파이브’의 세나, 키나, 안티, 나나, 이즈디(왼쪽부터).

올해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 국내 건설사 최초의 기술·문화교류 해외봉사단, 현대건설 ‘HCONTECH’ 3기 봉사단원. 이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4박16일 동안 인도네시아의 여러 곳을 다니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김희섭(H CONTECH 3기 간사)

**올여름, H를 새기다**  
지난 8월 23일 서울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올여름, 여러분의 H는 무엇인가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3기 H CONTECH(이하 H 컨택) 봉사단원들이 수료식을 위해 모였다. 행사에는 2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34명의 대학생 단원, 정예 직원 멘토 6명, 스태프 등 50명과 경영지원본부 박두일 본부장,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한 국제개발협력단체 코피온(COPION) 상수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3주년을 맞는 H 컨택은 우리 회사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획한 신개념 기술·문화교류 해외봉사단이다. 기존 해외 CSR 활동이 현장 인근 지역의 시설물과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봉사자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로 구성했다면, H 컨택은 기존 활동에 기술 교류를 더해 현장과 현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번 H 컨택이 특별한 이유는 전년보다 수혜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봉사 지역을 현장 인근으로 한정했다면, 올해는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자 프로젝트 예정지로 확장했다. 봉사 대상도 학생들에서 현장 인근의 지역 주민까지 대폭 늘렸다. H 컨택 총괄멘토 김세원 차장(총무실)은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온 만큼 현지 교육과 지역 사회 환원 이란 의미에서 활동지로 선정됐다”면서 “특히 켈레곤(Cilegon)은 플랜트 프로젝트 준비 지역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부처와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수료식에서 대학생 단원들은 뜨거운 2주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환호성과 아쉬움을 쏟아냈다. 직원 멘토 등 관계자들도 봉사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대학생 단원들에게 칭찬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박두일 본부장은

“선발부터 파견까지 두 달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봉사단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주민에게 큰 꿈과 추억이 됐을 것”이라고 수고한 단원들을 격려했다. 그렇게 H 컨택 3기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올고 온 14박16일간의 여정**  
H 컨택은 2주 남짓의 기간 동안 교육봉사와 노력봉사는 물론 기술·미술·체육·위생 등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은 현지에서는 쉽게 받지 못하는 과학·위생교육을 흥미로워했으며, 특히 한국전통 말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등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봉사단은 초등학교 건물 내외벽을 페인트칠하고, 벽화를 그리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아름답게 바꿨다. 배구장 외벽 페인트칠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미관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현지장은 봉사단원과 현지 주민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이었다. 켈레곤과 짜르본에서 각각 진행된 헌정식은 총 1, 2부로 구성됐다. 각 지역 군수 및 마을 이장들의 축사로 시작된 1부는 벽화 헌정식 등 H 컨택 3기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2부는 문화공연 시간이었다. 단원들은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온 K-팝 댄스와 탈춤, 태권무, 부채춤 등 한국의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현지 주민과 학생들도 애어로 박과 함창 공연을 선보이며 화답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지역 언론에 “한국 학생들, K-팝 공연과 봉사활동을 펼쳤다”라는 제목으로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문화공연에서 K-팝 댄스와 탈춤을 선보인 E조 최희주 대학생 단원은 “봉사단원들만의 공연이 아닌, 현지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라 좋았다”면서 “특히 실로단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합창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일정 가운데에는 두 차례의 기술 세미나와 켈레곤II 석탄화력발전소 현장 견학, 적정기술 리부도 포함됐다. 특히 출국을 하루 앞둔 날 이뤄진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G)에서의 기술 세미나는 H 컨택 봉사단원과 우리 회사 자카르타지사 직원들, 현지 대학생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었다. 총 다섯 세션으로 이뤄진 세미나는 ▶스마트시티와 건설 ▶그린시티 ▶4차 산업혁명의 건설 ▶성공사례 ▶최신 주택 트렌드 등의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다. 직원 멘토 정지민 대리(발전수행실)는 “양국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세미나여서 유익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우리 회사의 주요 입찰지 중 하나인 만큼 자주 교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힘든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단원들의 보람과 만족도 컸다. 단원들은 “Tempat Kita Bersama,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14박16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올고 온 H CONTECH 3기 봉사단. 이들의 활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우리 회사의 수주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인도네시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적정기술 이야기

H CONTECH의 전방이자, 봉사단원들의 마흔 바로 활동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적정기술 개발하는 것이다. 적정기술이란 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든 기술을 뜻한다. 단원들은 바쁜 봉사 일정 중 틈틈이 지역 주민을 인터뷰하며,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개발했다. 수료식에서는 조마다 고안한 적정기술을 발표하고, 시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의 지역 특색과 지역 주민의 생활사정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가운데, 최우수 적정기술은 생활 자원으로 건물 외벽과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바يو 차양막’이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최우수 적정기술 외에도 사업성과 현지 활용성을 갖춘 아이디어에 대한 우수 상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수 적정기술 A조 ‘바يو 차양막’**  
인도네시아는 ‘뜨겁고 나라’로 불릴 만큼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다. 국민 대부분이 선풍기와 부채로 여름을 나는데, 더운 날씨에도 사생활 보호 유망 장점을 담은 재지낸다. A조는 높은 실내온도 탓에 에어컨이 전기 집약적 밖에서 생활하는 현지의 모습을 주목했다. 이에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설치 가능한 ‘바يو 차양막’을 개발했다. 바يو 차양막은 설치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탈·부착이 편리하다. 설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로 화분을 만든다. ② 화분에 야자수 잎질이 혼합된 흙을 넣고, 덩굴식물(죽두콩 등)을 심는다. ③ 화분에 10cm 이상 간격을 두고 와이어를 설치한다. ④ 건물 외벽에 코너 보호대를 부착하고,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시킨다. ⑤ 덩굴식물이 자라면서 햇빛을 차단한다. A조는 ‘바يو 차양막’으로 건물의 실내온도를 5~10도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바يو 차양막’ 조감도

H 컨택 3기 적정기술 요약

조	적정기술	요약
B	REwater KIT	맑은 자연채와 단수료 부족할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미세 유해생물 살균수 조달키트
C	내륙형 가루리 양식장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질 좋은 대나무를 이용한 물고기 양식장 환경 개선 기술
D	커피찌꺼기 퇴비	한 해 평균 10만t가량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퇴비로 활용한 비료생산 및 환경보호 기술
E	정판식 열전	바닷물은 인도네시아의 지역 특색을 살린 열전발전 개선 및 소금 생산량 증대 기술

## H CONTECH provides its third overseas volunteer program in Indonesia



Participants of H CONTECH got together in Hillstate Gallery, located downtown in Seoul, on August 23 to celebrate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ir volunteering activities in Indonesia. They conducted a wide rang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in Indonesia for about two weeks between July 27 and August 11 by joining hands with COPI-ON,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global civil society. H CONTECH's third volunteer team consisted of about 50 participants including Hyundai E&C's employees and 34 college volunteers selected with the competition rate of 29:1. This year marks the third anniversary of H CONTECH designed by Korea's primary builder to promote new techn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s around the glob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The existing overseas CSR activitie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environments near Hyundai E&C's project sites and educational activities, while H CONTECH put an emphasis on reinforcing global networks between the construction sites and the regions in which they are located by adding technological exchanges to the existing volunteering activities. This year, H CONTECH expanded its scope of its activities to the potential regions where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be conducted in order to increase possibilities for winning contracts. Moreover, the overseas volunteering program was not limited to reach local students, but sought to benefit the significantly increasing number of residents around the construction sites. The main activities of the third volunteer corps revolved around educational programs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in two primary schools including SDM Ciledan in Cilegon and SDN Waruduwur in Cirebon. The volunteer team drew an interest from local children through a variety of hands-on activities related to science, arts, sports and hygiene. The volunteers made efforts to beautify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by painting murals and inner and outer walls of the schools. The dedication ceremonies were the most-awaited event of the volunteers and local residents. The ceremonies conducted both in Cilegon and Cirebon were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session gave H CONTECH credit for the participants' dedication. In the second session, they performed various Korean culture-themed shows such as K-pop dance performances, masked dances, taekwondo dances and fan dances. This year's H CONTECH included two rounds of technology seminars, a visit to the construction site of CirebonII Coal-fired Power Plant, and a review session of appropriate technologies. The technology seminar, held in University of Indonesia one day before the volunteer team left the country, wa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the H CONTECH volunteers, employees working at Hyundai E&C's local branch in the country,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experts took part in the event. It served as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knowledge under the themes of smart city and construction, green city, constru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ccessful cases.